손보협회, 올 핵심과제 소비자 방점… "안전망 확충 최선"

정지원 손보협회장 도전과제 발표
소비자 생활편리미엄·보호 등 선정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 박차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핵심 과제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18일 신년 사업계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2022년도 손보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금융·비금융 산업 간 빅블러 현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 사회적 책임 강화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든든한 안전망 제공이라는 손보 본연의 가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소비자를 화두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소비자생활에 편리미엄을 더하는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혁신으로 차별화된 손보 '마이(My)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 손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디지털 경쟁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손보협회는 이를 통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통해 손보업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중 정부에서는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를 제3자 및 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신용정보원 등과 협업해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를 건의·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한다.

3900만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 청구전산화 도입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헬스케어 및 고령화 시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손보협회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한다.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둘째로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도 확충한다.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춘 보험역할 강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 강화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의 민간 안전망 역할 강화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리스크 보장 확대 등을 통해서다.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제로 영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금소법 기반 소비자보호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해 회사와 소비자 간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전략이다.

빅테크·보험대리점(GA) 채널의 합리적 규제체계도 주문했다.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플랫폼 자회사를 통한 우회 영업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다.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조성을 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에 힘쓸 전략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해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급증하는 과잉한 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도 건의한다.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손해보험 My 생활·금융 플랫폼' 제공 서비스 예시

구분	서비스	활용데이터
금융	▪자산관리, 보험보장분석, 맞춤보험 추천 예) 항공권 구매이력→여행보험 추천, 운동시설 결제이력→건강체보험 추천	금융마이데이터 (상품가입정보, 구매이력등)
반려동물	▪반려동물 토탈케어 서비스 예) 동물병원, 애견미용샵 예약, 반려동물 용품 구입 등	금융마이데이터 (애견용품 구매정보)
건강·요양	▪맞춤형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예) 당뇨환자 식단추천·음식배달, 요양시설 예약안내 서비스 등	의료마이데이터 (건강검진 내역 등)
안전	▪기업고객(중소상공인)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주택(화재, 종합) 보험 연계 주택관리 서비스 예) 소상공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교육 / 주택 수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 맞춤 서비스 제공 예) 주유소·주차장·세차장·차량관리 등 서비스 연계	공공마이데이터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손해보험협회

MG손보 건전성 악화… 대표 교체설 솔솔

2020년 1000억 적자 전환
동기간 타사 대부분 호실적
영업총괄 오승원 하마평

MG손해보험 전경. /MG손해보험

박윤식 MG손해보험 대표이사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손보사와 비교해 실적은 매년 줄어 드는 데다 소비자피해는 늘고 있어서다. 현 오승원 MG손보 영업총괄 사장이 새롭게 MG손보를 이끌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적 얼마나 줄었나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 2020년 말 기준 영업손실은 11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77억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008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국내 주요 손보사가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간 것과는 다른 행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며 대부분의 손보사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RBC)비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MG손보의 RBC비율은 100.9%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소비자 민원까지 '악재' 겹쳐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손보협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MG손보의 소비자 민원건수는 1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6건)과 비교해 53.9% 늘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환산건수는 11.93건으로 전년(8.08건)에 비해 47.6% 증가했다. 통상 환산건수는 보유계약이 많은 대형 보험사들의 민원건수 규모도 높다. MG손보의 경우 보유계약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오승원 MG손보 영업총괄 사장이 박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오 사장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과 DGB생명 등을 거쳤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박윤식 대표이사와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 오승원 사장 간 (임기를 놓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 대표가 임기 중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라고 말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지주의 룰"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지연 기자

신한금융 블록체인·NFT 기업에 50억 투자

SI펀드 통해 '블록오디세이'에 투자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사 최초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블록체인·NFT 기술 기업인 '블록오디세이'에 50억원 투자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4월 그룹의 디지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및 예비유니콘 기업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SI)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펀드를 조성했다.

신한금융은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를 ▲미래 시장 선점 ▲비금융 플랫폼 연계를 통한 그룹 T&T(Traffic & Transaction) 확대 ▲그룹사 핵심 디지털 사업 활성화 등 3가지 전략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2개 기업에 총 1780억원을 투자를 진행했으며 펀드 운용(GP)은 신한캐피탈에서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NFT 기반 기술기업 블랙오디세이는 최근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권 최초의 NFT발급·관리 서비스인 'My NFT'를 '신한 pLay'에 런칭했다. 또한 신한금융의 SI 펀드가 투자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와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NFT 기반 정품 인증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급성장 중인 블록체인·NFT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銀 "비대면으로 주담대 신청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이 새해를 맞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이벤트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타행대환자금,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을 통해 하면 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비대면 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뒤 같은해 9월 완전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무방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고객의 비대면 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주택구입목적 및 타행 대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은행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IBK기업銀-동반위, ESG 우수 中企 지원

IBK기업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조기정착을 위한 ESG 관련 교육과 컨설팅 지원,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3년간 최대 1.0%p 감면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